

## 운영 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장교동 한화건설 회의실에서 봉희룡(한화건설 전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지방의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과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서 임대 주택 건설 면제 범위를 7층 이하로 확대, 지난달 17일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에 올라오는 공동 주택부터 상향갑식 설계로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건설사 로고·브랜드 부착이나 발코니 면적도 대폭 제한하는 서울시 공동 주택 심의 기준을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 현실화 반영 등 건설·건축 관련 15개 행정 규칙 개선과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 등 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건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 홍보위원들은 발표된 서울시 공동 주택 심의 기준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부 마감재 공사를 사용 검사 이후 시공이 가능한지를 협회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협회가 6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주택 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서명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장,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최영진 조이스랜드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48p 참조)



운영 홍보위원회 개최



2008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